

(첨부2 : 기자회견문)

## 졸속 · 위법의 청주 매봉공원 민간개발에 대한 정의로운 사법적 심판을 요구한다

-매봉공원 민간개발 취소 소송 원고인단 모집에 돌입하며-

우리는 청주 매봉공원과 함께 살고 있는 주민들이다. 우리는 지난 6년 동안 우리들의 생명이고 미래인 매봉공원을 살려달라고, 그리고 매봉공원의 미래를 우리가 직접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4,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참여한 반대 서명, 더운 날도 추운 날도 함께 든 수요 촛불, 10여 차례의 기자회견 등 그야말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옛말에 ‘지성이면 감천’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 했고 우리는 그것을 믿었다. 우리가 뽑은 청주시장이기에 대화에 나설 것이고, 국민촛불시대에 맞게 상식과 공정의 눈높이에서 행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다. 하지만 청주시장과 청주시에 이런 것을 기대하는 것은 고목나무에서 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우리들은 매봉공원 민간개발 취소를 위한 소송 원고인단 모집을 시작한다. 매봉공원 민간개발에 대한 사법부의 심판을 구하기 위해 대장정에 힘찬 발을 내딛고자 한다. 이제라도 청주시장과 청주시가 청주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매봉공원 민간개발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우리는 매봉공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 매봉공원은 청주 서남쪽에 있는 얼마 남지 않은 도심 속 허파이다. 미세먼지와 코로나19로부터 우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는 안전핀이다. 매봉공원은 어르신들에게는 효자, 젊은 사람들에게는 포근한 어머니, 아이들에게는 정을 느끼는 형제자매다. 매봉공원의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새 한 마리가 우리들의 이웃이고 친구다. 우리는 매봉공원이 있어 수곡동에 살고 있고 매봉공원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다. 이런 매봉공원이 2,000여 세대 아파트, 터널, 도로로 잘려 나가고 파헤쳐나갈 위기에 처해있다. 우리는 매봉공원과 200m 떨어진 잠두봉공원이 민간개발로 어떻게 파괴되고 사라졌는가를 이미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왔다.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했지 이를 지키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정부와 청주시의 직무유기, 그리고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서는 공동체의 눈물도 아이들의 동심도 짓밟는 자본의 냉혹함을 말이다. 우리는 잠두봉공원처럼 매봉공원을 다시 잃을 수는 없다. 매봉공원에서 건강하게 이웃과 정을 나누며 행복하게 사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인간답게 살 우리의 기본 권리이기 때문이다. 누구도 우리에게서 매봉공원을 뺏을 수는 없다.

**둘째, 매봉공원의 미래는 우리가 결정하고 싶다.** 매봉공원 민간개발은 우리들의 현재와 미래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우리는 매봉공원 민간개발에 대해 잘 알아야 하고 그 미래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매봉공원 민간개발과정에 철저히 소외되고 배제되었다. 청주시는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가장

기초적인 자료인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서를 시행업체와 결탁하여 공개하지 않았다. 청주시와 시행업체는 정보를 공개하라는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도 무시했고 법원의 1차 결정도 따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은 기본적인 정보접근부터 차단당했다. 같은 사업임에도 모두 다른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서의 도면, 문제가 되는 비공원 시설을 제외하고 받은 실시계획, 청주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실하다는 것을 인정한 교통영향평가, 거짓 자료까지 동원한 한솔초 증축계획, 새로운 공증보건기준에 함량 미달인 보건소 등 총체적 부실의 내용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알 수 없었다. 나와 관련된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하거나 대표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 주민들은 민간개발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 재양 수준의 교통문제, 교육의 질 저하, 공동체 파괴 등 모든 것이 우리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임에도 어떠한 결정도 할 수가 없다. 그저 청주시의 처분에 따라야 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취급받고 있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목소리 한번 제대로 낼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청주시와 시행업체는 이것을 악용하여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손발을 묶고 밀실에서 절차를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민간개발 특례는 엉터리 사업을 용인하는 특혜가 되었다. 주민들의 알권리를 부정하고 행정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한 각종 꼼수와 편법으로 진행되는 매봉공원 민간개발은 무효이다.

이상과 같이 매봉공원을 지키기 위해 나서는 우리들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주권자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이다. 또한 현재 우리 삶의 안정성과 공동체를 유지시키고, 미래 세대와 맑은 고을 청주의 지속가능한 삶을 가능케 하는 사회적 의무이다.

처음 민간개발로 매봉공원이 파괴된다는 사실을 알고 뭘가라도 해야한다는 절박함에 나섰던 그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소망을 담아 매봉공원 민간개발 취소 소송에 나선다. 앞으로 많은 어려움도 있겠지만 늘 그랬던 것처럼 서로를 믿고 의지하면서 뚜벅뚜벅 나가려 한다. 다행히도 우리를 지지하고 도움을 주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님들이 있어 든든하다. 청주시와 자본의 졸속, 위법의 광풍 속에 있는 매봉공원을 지키기에 동의하는 청주시민들의 따뜻한 연대와 참여를 호소한다.

2021년 2월 25일

**청주매봉공원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